



**LG전자, 국제백신연구소와 콜레라 퇴치 앞장**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콜레라 백신 접종 및 예방 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IVI 제롬 김 사무총장,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윤대식 전무, IVI한국위원회 박상철 회장이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LG전자는 내년부터 3년간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에티오피아에 콜레라 퇴치를 위한 백신 무료접종 및 질병예방에 나선다. /LG전자

## KST일렉트릭, '마이브' 물류사업 공급 확대 (초소형 전기차)

전용 배터리팩 장착 냉온장고 탑재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가 냉온장고를 달고 물류 작전에 투입된다.

KST일렉트릭은 최근 본격적으로 '라스트마일' 물류사업에 공급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라스트마일은 최종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을 뜻하는 말로, 물류업계에서는 중간 기착지에서 배달까지 운송하는 단계를 칭한다.

마이브는 배터리와 BMS, 모터와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35% 끌어올리고 주행 성능까지 개선한 초소형 전기차다.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초소형 전기차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배달용 냉온장고를 개발, 최근 전라남도 영광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냉온장고 모델은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냉온장고 별도 전용 배터리팩을 장착해 주행 성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은 4kWh로 섭씨 7도에서 2시간 유지 가능하다.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이름은 'D-박스'다. 시험 주행을 통해 냉장과 보온 성능을 극대화하는 최종 튜닝을 거쳐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 단말기와 무선 통신으로 차량 상태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정비 정보 제공, 차량진단장치를 이용한 위치 관제까지 가능케 했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에서 사륜차 서비스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상황, KST일렉트릭은 D-박스 보급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마이브 출고 차량 20% 가량이 배달업 종사자라는 설명이다. 실증사업으로 개발한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함께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박세리 광고 2편 1500만뷰 돌파

자연스러운 일상에 시청자 호응

LG전자가 '골프 여제' 박세리와 함께 '국가대표' 이미지를 확고히했다.

LG전자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광고 영상 '금성에서 온 세리언니'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리빌리지 습격편'과 '왕언니의 1인분 쿡방편' 2편으로, 공개 4일만에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서고, 2주반에 1500만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100만 조회수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영상은 박세리 선수의 당당한 일상과 LG가전을 함께 담았다. 박세리 선수 집을 찾아가 LG전자 가전을 살펴보고, LG 가전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다.

세리빌리지 습격편에서 박세리 선수는 TV 마니아를 자처하며 화질이 좋고 부드럽고 선명하게 골프 스윙을 보여준다고 LG 올레드 TV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왕언니의 1인분 쿡방편에서는 디오



박세리 선수가 출연한 LG전자 광고 영상. /LG전자

스 인덕션 전기레인지와 얼음정수기 냉장고,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등 주방 가전을 이용하며 "요리는 가전발, LG가 다했지"라는 메시지로 만족감을 표현했다.

시청자들은 자연스러운 연출에 광고가 아닌 예능처럼 시청했다며 호평을 보냈다. 최근 박세리 선수가 여러 예능에서 활약하는 상황, 털털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담겼다고 광고모델이 신의한수였다는 평가도 내렸다. 일부 시청자들은 '가전은 역시 LG'라는 영상 장면을 캡처해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 LS그룹, 2021년 정기인사 발표

# 안전경영 초점... 구본혁 사장 승진

구본혁 사장 등 31명 승진  
DT 등 R&D분야 인재 중용  
조직안정 통해 미래준비 박차

LS그룹이 3세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경영진을 대부분 유임하며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외부 영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추진했다.

LS그룹은 2021년 1월 1일자로 31명 임원에 대한 인사를 24일 발표했다.

LS그룹은 내년에도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을 대비해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두면서도, 미래 준비와 해외사업 및 R&D 인재 승진을 지속했다.

LS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조직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임원인사를 실시했다"며 "특히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사업과 디지털전환(DT) 등 R&D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구본혁 에스코홀딩스 부사장은 다시 사장 승진 인사를 받으며 3세 경영에 맨 앞에 섰다. 지난해 승진 인사를 받았지만 열흘만에 경영 수업을 이유로 자진 퇴진했던 상황. 1년만에 다시 승진 부름을 받았다.

구 신임 사장은 고(故) 구자명 LS니



구본혁  
에스코홀딩스 사장



구본규  
LS엘트론 부사장



정창시  
에스코 신임 CEO



구동휘  
E1 신임 COO

고동제련 회장 장남이다. 2003년 LS전선에 입사해 LS지주사 경영기획팀과 LS니고동제련 지원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에스코홀딩스 미래사업본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20년 가까이 묵묵히 경영 수업을 받았다.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본규 LS엘트론 부사장으로 CEO로 올라왔다. 구 신임 CEO는 구자영 LS전선 회장 장남으로, 2007년 LS전선에 입사해 슈페리어 에시스(SPSX) 통신 영업 차장과 LS일렉트릭 자동차 아시아퍼시픽 영업팀장, LS엘트론 경영관리 COO 등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워왔다.

구동휘 LS전무도 E1 COO로 승진 인사를 받았다. 구 COO는 구자영 LS그룹 회장의 아들로, 2012년 우리투자증권에 입사했다가 2013년 LS일렉트

릭 경영전략실 차장으로 이동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 산업자동차 사업부장과 ㈜LS 밸류 매니지먼트 부문장 등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에스코 정창시 전무도 에스코 CEO로 승진해 회사 경영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정 CEO는 1985년 극동도시가스에 입사해 에스코 경영지원부문장과 에너지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대표이사 등을 거친 베테랑 임원이다. 도시가스 사업 고객 서비스와 안전 등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임원 인사에서는 해외사업과 R&D 분야 비중을 늘려 해외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전장 계열사인 LS오토모티브에는 현상영 상무 HKMC 영업부문장과 이용욱 상무 SW개발센터장(연구위원)을 영입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기아車, 구독형 서비스 '기아플렉스' 리뉴얼

포티투닷 구독 서비스 플랫폼 적용  
4세대 카니발 등 차종 추가

기아자동차가 구독형 서비스를 본격 론칭했다. 기아차는 기아플렉스를 리뉴얼 출시하고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아플렉스는 차량 임대에 대한 보증금이나 차량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 없이 월 구독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기아차 최초의 구독형 서비스다. 지난해 시범운행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로 론칭하게 됐다.



기아플렉스. /기아자동차

이번 리뉴얼은 지난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스타트업 포티투닷의 차량 호출과 공유, 구독 통합 서비스 플랫폼 유모스도 적용

했다.

대상 차량은 기존 K9과 스티어, 모하비와 니로·쏘울 전기차를 비롯해 4세대 카니발과 스티어 마이스터,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을 추가했다.

서비스 지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확대했다. 신규 서비스로는 방문 세차 '인스타워시' 할인권과 주차대행 서비스 '잇차' 할인권 등을 마련했다. 카니발 익스피리언스 서비스 이용시 캐리어 전문 업체 톨레 카캐리어도 추가 대어한다. /김재용 기자

## LS전선, 오스테드사에 해저케이블 공급

5년간 해저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

LS전선이 덴마크 오스테드사에 5년간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우선 공급하게 됐다.

LS전선은 세계 1위 해상풍력개발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5년간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LS전선은 오스테드와 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 혼시 및 대만 장화현 해상풍력단지 등의 케이블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각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게 돼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바우센바인 오스테드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은 "해상풍력 시장은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서는 LS전선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케이블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포스코에너지 일하는 문화 혁신기업 대상

포스코에너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 민간발전사 최초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대치동 SE-TEC 컨벤션홀에서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포스코에너지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일터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수지 기자